



‘학생처장’ 싫어할 자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할 보직

박 종 성 | 명지대 체육학부 교수

2년이 보직 기간인 학생처장직을 세 번이나 연임하며 6년이라는 기간을 보냈다. 남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세 번씩이나 할 수 있었느냐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지금 심정은 군대에서 장기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다행히 대과 없이 임무 수행을 하고 적게나마 학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에 그동안 보좌했던 세 분의 총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업무의 굴곡이 심하고 타 부처의 신속한 도움이 없이는 즉각적인 실행을 바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곳이 학생처라고 본다. 이번 학기에도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로 학생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대학마다 배경이나 규모,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학생처장의 역할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전국 190여 개 대학 학생처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으면서 터득했던 경험을 토대로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각 대학의 처장님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본다.

I. 학생지도 문제의 제기와 그 원인

대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상 학생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 특히 학생들에 의해 구성된 학생자치 기구의 대표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며 소위 ‘계열별 모집 철폐’ 또는 ‘학부제 반대’ 등의 구호와 함께 ‘학과별 모집, 학과제 선호(구 학제)’로 회귀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수 차례 가졌을 것이며, 학생들은 이에 대한 다른 형태의 요구 사항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학생들과 학교가 함께 다룰 수 있는 ‘합의 기구 건설’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학교 당국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합의 기구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다거나 건설적인 요구 사항에 대하여 권위주의적으로 대한다면,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여러 형태의 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기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주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생자치 단체의 역할이 기성 노조의 역할과 유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학생처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가지 용어상 혼동해서 안될 사항이 있다면 '합의'와 '협'의는 다른 문제로 현재 학생들의 자치 단체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협의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속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권이 행사되는 '합의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학교 행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 복지, 교육 프로그램, 행정 개선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학생 대표로부터 이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반응은 얻지 못하는 현실이다. 과연 무엇이 학교와 학생 대표들 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가? 이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경험에 비추어 찾아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상호신뢰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학생 대표자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 대표 또한 학교 당국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대표들은 소위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모든 개선을 맑시스트 주장처럼 오로지 투쟁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고마움이란 이들에게는 찾기 어렵다. 오로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투쟁에서 얻어낸 성과물로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

둘째, 학교 환경 밖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진단을 하는 동시에 마치 모든 사회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써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다. 실상 학생들은 그들이 학생인지, 정치인인지 또는 이익 단체인지, 압력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안 없는 문제점 표출에 몰두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셋째,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적 진단과 처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개선해 주어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항의와 요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II. 학생지도의 실제

학생지도 대책 내지 문제점 해결방안은 결국 앞서 소개한 주요 문제제기 원인을 고려해서 찾을 수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신뢰감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뢰감 조성에 있다고 본다. 신뢰감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공허한 독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로가 언제 들어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만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감을 조성할 것인가?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적인 감정으로 긍정적인 사안

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과 칭찬을 해주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방해야 한다. 이 경우 과거에는 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종의 편견이 은연중에 각각 작용하여 대립적인 관계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둘째,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여러 면에서 원칙보다 예외가 판을 치는 경우를 늘 보고 생활하고 있다. 원칙에 따르면 항상 어리숙한 못난 사람이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은 늘 치외법권의 예외 속에서 생활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주의·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 표출 과정은 언제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우에만 비로소 존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을 명백하고 원활히 해야 한다.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됨을 명백히 해야 한다. 언제든지, 학생과 시간을 약속해 놓고서 대화를 하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성의껏 대화에 임하여야 한다.

Ⅲ. 전체 교수들에 의한 학생지도 체계 확립

학생지도는 일부 보직 교수의 몫이 아니다. 모든 교수들이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때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일부 교수들 중에는 학생 지도가 교수의 중요한 책무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지도 활동도 교수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유지되어 온 '분담지도교수제' 또는 '학년지도교수제'로는 학생지도의 효율을 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제와 계열별 모집"을 시행함에 따라, 신입생들은 전공학과 소속 없이 입학하여 다전공 등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학과 소속감이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은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사지도교수제' 또는 '담임지도교수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다전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학생 지도는 교수들의 업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전체 교수회의 및 학생 지도 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사항들을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담당 학생들과의 소집단 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대학 생활의 설계를 도와주며 사제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

둘째로 모든 교수는 연구실 문 앞에 학생 면담 시간을 게시해 두고 전공 선택, 다전공, 전과 등 학생 진로 및 취업에 관하여 학문적, 행정적 지도를 하며 상담 내용을 면담 일지에 기록하는 것.

셋째로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 성적 및 가정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하는 것.

넷째로 학생 개인별 면담 카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전과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이 면담 카드를 새로운 지도교수에게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Ⅳ. 대학간 학생지도 협조의 필요성

학생운동 조직은 학교 단위의 자치활동 범위를

넘어 전국적 단위의 전문 정치운동 조직의 형태를 띠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개별 학교의 학생회 활동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활동의 범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 차원의 지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자치 활동 지도에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대학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지도 를 위한 협의체는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유연한 비공식적인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친목 단체 성격이 강한 지역별, 대학규모별, 학생처장 협의회가 그 기능을 재정립하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 문화, 대학 생활과 봉사활동, 취업지도 방안, 성문화, 남북교류, 복지시설 증진,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신입생 수련회 개선방안, 동아리 활동 방안, 학생회 활동, 각종 수련회 방안 등의 대안들을 특별강연, 사례발표, 분임토의 등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은 처장들이 각자 유익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처장들끼리의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수집은 물론이고 위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V. 올바른 학생자치 활동의 제도화 추진

오늘날 대학생들은 의식 성향이나 가치지향성, 행동양식 등에서 과거 대학 사회를 이어 주었던 이념이나 이슈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미 사라진 대학에서는 취향의 다양화와 함께 구성원간의 결속이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폭력적 과격 투쟁을 걱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

처장들이 판단하기에 이는 전체 학생의 1%정도에 불과하며,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모순에 강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은 약 5% 정도라고 보고 있다. 그 외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취미 활동 등 개인적인 일에 열중하고 학생운동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올바른 학생자치 활동의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학생자치 활동이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가 과격 학생운동의 조직이 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불법·불건전 이념 서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반드시 지도교수를 두어 학생지도 책무를 다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효율적 학생 지도를 통하여 과 학생회 등이 과격 학생운동의 기반 조직이 아니라 건전한 자치활동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들에 대한 운동권 선배들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주어야 한다. 과격한 학생운동 조직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각종 홍보 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운동권이 주로 사용하는 홍보 수단인 대자보, 학생회 유인물, 학보, 학내 방송, 인터넷, PC통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이다.

대학 언론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의 허부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부 조직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보도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신문이 지성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 활동 회비가 과격 학생운동 조직의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불건전 학생 활동에 대해서도 학생회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생회가 구내 매점, 자동판매기, 운전특강, 어학특강, 자료집 판

매, 노래 테이프 판매 등 각종 영리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처장은 이와 같은 학생회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학생회 간부들에게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학생회의 본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Ⅵ. 건전한 동아리 문화의 정착과 다양한 지원체제 구축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체 학생의 30~50%가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지도는 학생처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본다. 학생들의 개인주의화 가운데서 동아리 활동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3D라 하는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풍물패, 산악부, 조정부 등 육체적으로 힘든 동아리나 학보사, 교지 편집 등과 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최근에는 통역, 조명 등의 전문 분야를 배워 활동하면서 용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실속파 동아리가 늘고 있으며, 창업 바람을 타고 창업 동아리나 벤처 동아리가 대학 내에서 인기가 높아 가는 새로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동아리 활동이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아직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리 활동은 첫째, 자기개발과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성과 없이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행동에 머물고 있다. 소비지향적, 향락적인 활동으로 자기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 예로서 대학 축제를 들 수 있다. 자기 개발의 좋은 기회를 주점 운영 등 특수 목적의 경제적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 정도로 이용하고, 여러 행사도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일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충분한 자기 개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학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문화나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현실 사회로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동아리 연합회 학생들 간에는 폐쇄적인 친목만을 도모한다거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 볼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동아리 활동 속에서 사회성 훈련이 일어나기 보다 오히려 동아리 별로 이루어지는 새내기 신고식에서는 신입 회원들에게 통과례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넷째, 동아리 활동이 대학 내의 학생과 교수 및 직원 간의 인간적인 유대형성과 교류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현재 대학 캠퍼스에 결핍되어 있는 공동체적 요소의 회복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아리 활동에 교수나 직원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들과 대학 당국이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문제점도 있다.

다섯째, 동아리 활동은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유대 확립에 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봉사 활동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대 형성을 위한 동아리 자체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동아리 연합회에서 대학 당국에 요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은 재정지원과 공간지원 일 것이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학생처가 직접 또는 동아리 연합회를 통해서 동아리 회원 규모나 활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개 일률적으로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아리 규모나 활동성, 활동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선행하여 차등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간 지원에 있어서 각 대학에서 학생회관 한·두 건물의 일정 공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합리한 공간 사용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동아리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일부 동아리 회원의 생활 공간이 되어 기숙 문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 공간의 독점적 이용 관행을 폐지하고 완전 공유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동아리들의 반발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처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매 학기별 동아리 분과별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 또는 특별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과 동아리실 환경 미화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 등의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위 N세대를 위해 문화·예술 공간과 휴식 시설, 캠퍼스 환경 개선 등에 각별한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정보 분야 동아리 활동의 강화가 학생 활동에 무한한 기능성과 질적 전환을 가져 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의 정보 인프라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이제 학생처는 동아리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문화와 학생들의 여가와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Ⅷ. 학생처의 당면 과제는 교내외 교육환경 조성이다

아직 각 대학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학생처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당면 과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학의 안팎

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교수와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설 확보와 세밀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학내 기숙 문제이다. 대부분 대학의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단대 학생회가 학내 기숙을 원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불법 학내 기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숙에 따른 난방과 취사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고, 대학 내 취약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므로 통제 및 지도가 어려우며, 도난 사고 발생과 수배자 은신처가 될 우려가 있다. 학생처는 이와 같은 학내 기숙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취사도구와 위험물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교내 게시물(프랑카드, 대자보 등) 정리 문제이다. 이동 게시판 설치 운영은 게시물 정화에 도움이 되며, 불법게시 및 부착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정비 문제이다. 대학 주변의 환경 정화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지나친 상업화와 퇴폐적인 업소의 밀집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내 소음 방지 문제이다. 캠퍼스 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풍물패의 징과 팽파리 소리, 교내 유선 방송의 소리, 교내를 수시로 통과하는 차량의 행렬과 소음, 강의가 없는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소음들, 학생회의 선전용 고성능 스피커의 소음, 학생회관의 보컬 그룹의 소음 등으로 인한 공해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학내의 소음 공해나 무질서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면학 분위기가 이완되고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처 방안은 곧 대학의 본연의 자세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이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협력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내 복지시설 문제이다. 복잡한 식당, 시끄러운 매점, 지저분한 화장실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초 복지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학생처장님 이렇게 합시다

적당히, 소극적, 요령껏! 보직에 임하면서 총장님과 보직교수 회의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또는 처장이 열심히 해서 학교가 조용한 것처럼 미사여구를 붙여 그럴듯한 보고만으로 임무를 다 한 것처럼, 여유를 부린다면 대학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것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처장직은 싫어 할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솔선수범 해야 할 보직임에 틀림없다. 일찍 출근하여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건물 안팎에 붙어 있는 대자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행사나 모임, 요구 사항, 분실물 등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처장은 행정 보직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정확해야 하며, 보직 기간에는 개인적인 일, 연구, 학회, 취미활동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순위를 뒤로해야 한다. 또한 직원, 교수, 학생들에게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겸손할 필요가 있다. 교직

원들에게 권위 의식만 보여준다면 아마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외로운 처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장은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주관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외부 행사에 있어서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행사를 하면서 돌출될 수 있는 사항들은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실천 없이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총장을 경원(敬遠)하지 않도록 학생 행사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총장 및 교수들과 학생 대표들간의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총학생회 지도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세기의 캠퍼스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운동권보다 다수의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 및 면학 분위기를 도출해 내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끝으로, 처장 보직은 전체 교수 중에서 선택되었다는 긍지와 고마움을 갖고, 보직기간 동안 학생 지도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수시로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처장이 되어야 한다. **■**

박종성

명지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그리고 명지대에서 운동생리학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동남보건대 교수로 교무·학생처장을 역임하였으며, 6년간 명지대 학생처장, 전국 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체육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최신보건학』과 운동생리학 분야에 대한 다수의 연구 성과를 펴낸 바 있다.